

† 마데테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경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신윤식

지금 당신에게  
기쁜 일이 있어 웃던  
슬픈 일이 있어 울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그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모든 시간이 지나고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주어진 복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것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0.20

발행호수 제21권 42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혼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더 기뻐하시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사실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의인 아혼아홉과 죄인 한 사람은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보다 의인 아혼아홉의 의의 실천에 기뻐하시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개가 비록 중요하다고 해도 회개는 신자로서 기본적인 것이고 실천은 믿음의 열매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고 수군거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기준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속한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 비해 그들의 삶은 영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형편도 그것을 증거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요하게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생활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그에 비해 죄인들의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증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이고 복음을 모르며 예수님을 죽인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평소 신앙생활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오죽 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혼아홉으로 비유하셨겠습니까.

주일오전설교  
눅 16:19-31

## 부자와 나사로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종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종교 기준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5장과 16장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처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하신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자로서 당연한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헌데 투성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겨우 허기를 면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로 이어져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으로 반전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쉽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만을 두고 말한다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만 좋아하고 세상을 즐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 갔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천국을 대비하고 살았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본문에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 자체를 두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야 합니다. 만약 부자가 자신에게 있는 돈으로 호화롭게 즐긴 것이 잘못이라면 모든 부자는 돈이 있다 해도 즐기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문 앞에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혼자서 호화롭게 즐긴 것이 부자

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대문 앞에 더러운 거지가 있음에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그나마 부자는 나사로를 많이 봐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문 앞에 그냥 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사로를 집에 들여서 헌대를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잘못으로 여겨진다면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노숙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목격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부자의 잘못된 행동이나 나사로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선불리 우리의 추측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차별했던가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 누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거지 나사로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죽은 후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이들이 생존해 있을 때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부자가 복 받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다면 부자는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자부하며 살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일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내용 그대로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하나님께 복 받은 천국 백성으로 보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자는 평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자에게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기준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결정될 뿐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로 언급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는 나사로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이 이름의 뜻과 나사로의 현실의 삶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거지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복과는 거리가 멀고 저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정도입니다. 세상의 시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거지가 아니라 부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란 이름을 통해서 저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부각시키면서 죽음 이후의 각기 다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24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가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는 안겨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4절)라고 애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생존해 있을 때 그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는 애통함입니다. 부자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여기지 않았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요하게 살고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바라보겠습니까?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긍휼히 여김 받을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신들을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자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가지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내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좋은 것을 누리고 산 사람은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고 반대로 가난하게 살며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 보상으로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공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세상에서 고난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 스스로 자신이 누리는 부를 좋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에게 좋은 것은 그가 누리는 부요였습니다. 부요함을 좋은 것으로 여겼기에 인간의 인생에 진심으로 좋은 것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친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실 좋은 친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임을 안다면 부요하든 가난하든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물을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재물이 많다는 것으로 복 받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지 나사로 보다는 부자 쪽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자가 지옥 간 것으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부자 되도 지옥 같 사람처럼 살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 말로 사람은 누구나 지옥 같 자로 살고 있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할 예수보다 여전히 돈이 좋다는 본심을 드러내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생존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여겼던 회개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천국 간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들은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 즉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함을 알고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대개의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쉬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 시각에서 삶을 이해한다면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해타산을 따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는 생명의 문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참된 감사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일오우설교  
시 136:1-9

감사의 노래

(140강 9.29일 설교)

말씀대로 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만 뜻을 두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일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세상 것에 국한 시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다면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온 마음을 두게 될 것이고 감사의 내용 또한 세상일 보다는 생명의 문제로 깊어 질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둘 때 신자는 전혀 새로운 감사의 세계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육신을 위한 일하심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감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 는 문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 역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서 '감사하라' 고 하고 역시 매 구절마다 후렴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는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합니다. 저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떠신 분이며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갈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여 인도하시고 양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

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심 안에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우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은총을 누리고 있기에 생존 자체가 은혜입니다. 해와 달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단지 숨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개입하셔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불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6편에서 중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인자함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긋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 또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는 종교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종교 세계에서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 세계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상투적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체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행복해했습니까? 원하는 것을 먹었지만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벗은 자신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몸을 가렸습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신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감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나를 나 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를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음에도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기억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비천의 실존은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부요하다 해도 모든 인간은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비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만을 가장 복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 어느 하나도 자질이 있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더 갖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신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신하는 도중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고

말씀합니다(19절). 무슨 의미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애굽은 이방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

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아킴이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 앉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눌러 살아야 할 땅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은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한 것은 바벨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서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이라면 이 말씀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한 후라면 다릅니다.

유다는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하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신뢰하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도우셨다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유다 백성의 생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신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도우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해 회의감이 들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며 일이 이루어진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멸망의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매우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실

수요일설교  
렘 42:18-22

애굽으로  
가지 말라

(95강 10.16일 설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와 근심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삶보다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하는 삶의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단지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이해한다면 멸망 후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러한 유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은 유다의 회개 이후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심판-회개-축복’이라는 도식과도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멸망 전의 유다의 생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근거를 유다라는 민족성에 두었고 율법을 행하는 자기 행함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멸망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이 의미를 두고 붙들고 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은 유다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멸망하기 전의 유다의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참된 믿음에 붙들어 놓기 위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있음을 아는 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이며 뜻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자신을 축복과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어려운 일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돕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참된 신

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복 받는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길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 잘못을 자기 신앙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에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뻐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도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타인보다 좋은 것, 많은 것을 누린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잘해서 복 받았다’는 교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고 말합니다.

유다 땅은 황폐화되었고 여기저기 전쟁 후유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평화롭고 양식이 풍부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유다 땅에 눌러 앉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참된 현실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다를 도우셨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곧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생명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허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4장  
교 독 : 64(시148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309장  
성 경 : 눅 16:19-31  
말 씀 : 부자와 나사로(8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찬 송 :  
기 도 :  
찬 송 :  
성 경 :  
말 씀 :  
기 도 :  
찬 송 :  
주기도문 :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6강)

## ■ 교회소식 ■

1. 오늘 오후 예배는 3시에 행복샘교회당에서 구역시찰회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2. 26일(토) 오후 5:40분에 칠곡세븐밸리 4층 까르르스타에서 이세훈(이인혁, 임수희)의 돌 예배가 있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송재관 집사

## 이단 53

정명석의 30개론이라는 것은 여느 이단과 다를 바 없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유치하고 해괴하다고 할 수 있다. JMS는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을 정도로 사회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것은 정명석을 둘러싼 성추문 사건 때문이었다. 정명석은 결국 성폭행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청년 추종자들은 정명석을 이 시대의 의인 중의 의인으로 지칭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이 집단에 함몰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뚜렷이 제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유려한 화술, 그리고 뛰어난 술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기독교인들이 이 집단에 동화되는 것은 현대 교회를 향한 불만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판을 받기 일쑤이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상태 속에서 사회봉사과 분화 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JMS가 긍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JMS를 포함한 다양한 이단 집단에 대한 교회의 대안은 무엇일까? 마치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경계심을 고쳐사키는 것처럼 '이런 이단이 있으니 조심하라' 고 교육하면 되는 것인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기존 교회에 뭍다고 있다는 것으로 이단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기존 교회에 뭍다고 있다고 해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좇는다면 그는 구원과 상관이 없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사실 정명석의 30개론이나, 다른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라는 것들은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런데도 그러한 논리에 동화되는 것은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불합리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단 교리의 특징은 성경과 성경을 꺾어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집단 옹호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인간을 위한 예수, 교회를 위한 예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대안일 뿐이다.

'이 집단은 이단이니 가지 마세요' 라고 교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신자가 어떤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 스스로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교회로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들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 'JMS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명석 목사님을 믿습니까?' 이에 대해 이들은 '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보다 정명석 목사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핵심 사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답한다. 이들은 이런 질문과 답은 자신들이 정명석을 추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자신들을 정당화한다. 이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기존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는 늘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